

# 교회건축 이렇게 하지말라

남 기 완 (목사, 충북 충주 엄정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은 교회를 지으려는 사람들의 중요한 명제이다. 후회 없이 두고두고 기분 좋고 사용하기 좋은 교회건축을 꿈꾸며 많은 목회자들이 도전하지만 짓고 난 후에는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회를 잘 짓기 위해서는 실패한 교회 건축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교회 건축을 위해 피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집착을 버려라

교회 건축이라는 큰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처구니없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흔히 말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집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게 얽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소한 것을 마치 이데올로기처럼 받들고 집착하여 큰일을 망치는 경우는 어디에나 있지만 교회 건축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 1) 교회 건물에 대한 고정 관념을 버리자

실패한 교회 짓기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교회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목회자나 교인들의 고정관념이 집착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뽕족한 종탑, 일층에 교육관과 식당을 넣고 이층에 본당을 짓고 마을을 축복하듯 내려다보는 모습, 외벽은 빨간 벽돌을 사용하여 짓고 줄 눈은 흑연을 사용하여서 까맣게 하여야 하고 예배실은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설교를 하는 윗강단은 높고 넓으며 일반적으로 성찬상을 놓는 아래 강단은 최소화시키는 식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나라 교회에는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짓고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막대한 건축비를 소모하면서 공간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종탑에 그렇게 집착하여야 할까? 빨간 벽돌이 최선의 외부 마감일까? 예배실은 꼭 직사각형이어야만 할까? 아래 강단은 윗강단 보다 작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실제로 다른 교회들의 모습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2)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자

통나무가 주위에 많다거나, 흙벽돌 찍는 기계가 있다거나, 건축에 필요한 트러스트를 누가 거저 준다고 했다거나 하는 약간의 이점 때문에 건축 구상 자체가 제한되는 수가 있다.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나 여기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약간의 이득 때문에 큰 비용이 지출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낙엽송 통나무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건축할 때 자재 사용이나 골조에 대해 폭넓게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을 사용하여 지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후회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사용하여서 지을 수도 있겠고 그럴 경우 자재비가 많이 절감될 수도 있으나 얽매이지는 말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더욱 위험하다. 실제로 비싼 트러스트가 거저 생겼으니 지붕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트러스트를 사용하는 구조로 하고 건축 규모도 트러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규격대로 짓는 경우를 본적이 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또 낡은 구건물을 아까워서 그대로 남겨두느라 공사가 어려워지고 대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건물의 모양도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대범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 3) 실험정신에 집착하지 말자

첫 번째 경우가 고정관념에 얽매어서 실패하였다면 반대로 왕성한 실험정신 때문에 이상하고 불편한 교회를 지은 경우도 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시도하여야 하겠지만 교회 건물은 목회자 한사람이 사용할 것도 아니고 한사람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을 가질만한 상식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버리기 아까운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반짝이는 나의 아이디어가 시간이 흐른 후에 나조차도 우습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은 시간을 뛰어 넘어 오래도록 남아 있게 됨으로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가 있다.

### 4) 건축비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돈 없이 믿음만으로 지을 수는 없는 것이 교회건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생각해서 적당한 규모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힘에 맞게 짓는다는 것이 편하게 지으려는 생각과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모 없이 '기왕 짓는 김에...'라며 무조건 크고 고급으로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건축비 문제에 너무 얽매어서 작고 초라하게 짓는다면 짓자마자 후회를 하게 된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적으로 수고할 것을 각오하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용과 맹신을 버리되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결정해야 한다.

### 5) 걸모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아름다운 걸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간에 대한 연구가 도외시 될 수 있다. 특히 책이나 사진에서 본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보면서 우리도 일단 이렇게 짓고 그 안에 마련된 공간의 사용 계획은 후에 생각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교회를 짓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얻기 위해서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최적의 공간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으로 아름다운 걸모습을 생각해야한다.

## 2. 영웅심을 버리자.

교회 건축은 사심 없이 지어야 한다. 교회를 짓는 목적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 교회를 짓는 첫째 목적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목적 아닌 소위 영웅심에 사로잡혀 교회를 짓는다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영웅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웅장하게 짓자

교회를 웅장하게 지어서 지역사회에 뭔가를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교회가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고 뛰어난 건축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시골에서 살다 보면 기관들끼리 경쟁이나 하듯 건물을 짓는 것을 볼 수 있다. 면사무소, 농협건물, 우체국, 파출소 등 마치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이 짓고 있다. 면 지역의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저렇게 큰 면 청사가 필요할까? 농민들은 빚으로 허덕이는

데 그들에게 이자 받아 부자된 농협은 웅장하게 짓고 있다. 그 틈에서 교회는 낡고 초라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새로 지을 때 눈에 띄이도록 크고 아름다운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다. 심지어 노회를 유치하겠다는 마음에 교인 수와 상관없이 본당을 크게 짓는 교회도 있다. 도시 교회는 본당이 몇 석인가 하는 것이 교세를 나타내는 것이라도 되는 양 수천석 규모의 교회 짓기를 경쟁하고 있다. 너무나 허황한 발상이다. 교회를 규모에 맞게 활동에 편리하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심을 버려야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다.

## 2) 저렴한 건축비

어쩐 일인지 교회를 짓고 나면 싸게 지은 것이 목회자의 큰 자랑처럼 여기는 풍조가 있다. 공사비는 짓는 사람이 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하여서 정하게 되는데 교회가 원가 이하로 지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교회 짓는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짓되 헌금하는 마음으로 이윤도 없이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지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는 원가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싸값으로 지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교회를 지을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건축비를 줄이되 수고한 이에 대한 적절한 이윤을 인정하는 마음이 신앙인의 바른 마음이다. 교회 짓고 큰 손해 봤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건축하는 이들이 적정한 원가 이하로 지을 때는 비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부실하게 짓거나 자금 흐름 상 일단 공사를 수주하여야 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두 가지 모두 문제가 된다. 특히 자금 흐름 상 일단 수주하고 보겠다는거나 고의로 부도를

널 작정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좋은 교회를 원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싸게 지으려는 것이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서 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큰 문제이다. 남들은 얼마를 들여야 짓는데 자신은 불과 그 반값에 지었다는 자랑을 하려는 생각이야말로 교회를 지을 때 반드시 버려야 할 영웅심 중의 하나이다.

### 3) 아주 특별한 교회

교회를 지을 때 좀 특별하게 짓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만일 그런 마음 없이 되는 대로 짓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길만한 멋진 교회를 짓겠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 유적으로서 남을 만한 건물, 세계 곳곳에서 보기 위해 물려올 만한 건물, 달력이나 책의 표지에 실릴만한 건물을 지으려는 생각이 결국 교회 건축을 실패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생각해 볼일은 목회자의 허영심이다. 교회 건축에 욕심을 내는 일을 말하는데 특히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겸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연구를 해서 불필요하게 큰 건물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우리 교회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찾아내서 교회 건물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한다. 아무튼 교회 건축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는 욕심은 버려야만 한다.

### 3. 아집(我執)을 버리자

묘하게도 교회 건축을 하다보면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참 위험한 일이다. 건축 전문가나 교회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동료 목회자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참고할 일들은 많이 있다. 설계 단계에서는

외관이나 구조, 외부 마감방법, 규모 등에 관한 것들이,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 방식, 시공 업자 선정과 같은 크고 중요한 것부터 난방의 방식이나 난방장치의 위치 심지어 수도꼭지의 숫자와 위치에 이르는 사소한 것까지 먼저 지어보고 사용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지으면서 아집에 빠지는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우리교회는 특별하다?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에 찬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회가 다른 목회자들이 맡고 있는 교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착각을 한다. 우리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거나, 의식이 앞서 나간다거나, 담임목사의 말에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경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지으려는 교회 건물도 특별하다는 생각에 경험자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규모가 남다르고, 구조가 남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므로 다른 교회 건축의 경험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다. 물론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건물도 그에 맞는 구조적인 특수성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경험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안전하게 짓고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 2) 업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자

건축을 하는 목회자가 건축의 경험 있는 동료 목회자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는 동료 목회자들보다는 건축업자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한번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공사를 맡겼다고 자랑하는 목회자를 본적이 있다. 필자가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싼 가격으로 지을 수 있다더냐고 물었더니 그 업자가 자금이 상당히 넉넉한 사람이라 통화위기

(IMF)때 부도나는 업체들로부터 자재를 덤핑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자재 값도 많이 절감이 되었고 신앙심이 상당한 사람인데 교회 건축하면서 자신의 인건비나 이익을 챙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축 사기꾼들의 상투적인 말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조언을 하였다. 그 후 얼마지 나지 않아서 계약금만 떼이고 그 업자는 부도를 내고 달아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 3) 겸손한 자세로 짓자

교회 건축을 시작할 만한 교회라면 목회자가 목회에 대하여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 때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기 쉽다.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이 지은 건물을 보면서 많은 허점들을 찾아내고 저들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교회를 잘 지은 목회자에게만 배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쉬움을 가진 목회자들에게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겸손하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성공적인 교회건축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많은 조언을 듣는다해도 결정은 자신이 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한다면 교회를 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교회건축에 실패하거나 후회하게 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양하게 나누어서 언급을 하였으나 결국은 교회 건축에 임하는 목회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사심을 버리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세로 한다면 후회 없이 지을 수 있을 것이다.